

Focus

'22년 3분기 6대 전략광물 시장전망

* 본 자료는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요 약

- ▶ 최근 전략광물 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라 경기침체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및 전력난에 따른 경기둔화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
- ▶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 신규수요가 동, 니켈 등 핵심광물의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연탄과 철광석 등은 그린에너지 확대기조에 따른 중장기 수요둔화 가능성으로 하방압력이 우세해질 것으로 예상됨
 - 동은 미연준의 긴축정책 강화로 달러강세화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둔화될 전망이어서 하방압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23년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의 Komoa-Kakula 등 신규/확장 프로젝트 진입으로 가격하향추세 전망
 - 니켈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확대 및 러시아발 공급망 위기로 상반기까지 시장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미달러화 강세 및 인도네시아의 정제련 생산캐파 확대효과 등으로 하방압력이 우세해질 전망
- 아연은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유럽의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메이저 Nyrstar사의 제련소 가동중단 등 공급차질이 유발되어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나타낸 이후 글로벌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하방압력이 시장하락을 주도할 전망이다
- 철광석은 중국의 전력난 및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철강산업 성장둔화 전망 및 메이저의 자원가 증산전략으로 중저가 하락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유연탄은 러시아발 공급망 위협 및 유럽과 중국의 전력난 심화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세계 경기둔화 우려 및 저탄소에너지원 선호정책으로 인해 중장기 수요측면의 하방압력 예상
- 우라늄은 과다채고 및 공급과잉적 펀더멘털 제약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됨. 다만, 일본의 원전재가동 정책강화 및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망 차질로 상기 하방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전망

미 달러화 강세 및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하방리스크

4차산업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원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중간의 갈등 속에서 핵심광물의 수급확보가 중대한 과제가 되었으며, 자원시장을 움직이는 세계 통화정책의 기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작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극복을 위한 미국과 EU의 제로금리, 양적완화 등 통화팽창으로 투자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원시장은 2년넘게 유례없는 강세장을 나타냈으나, 금년들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하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화로 인해 자원시장의 하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긴축경쟁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직면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규모에 따라 자원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좌우될 전망이어서 달러 리스크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발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면서 중국, EU 등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중국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요 도시들의 봉쇄조치가 이어지면서 산업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자원시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와같이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적 변수들을 광종별 수급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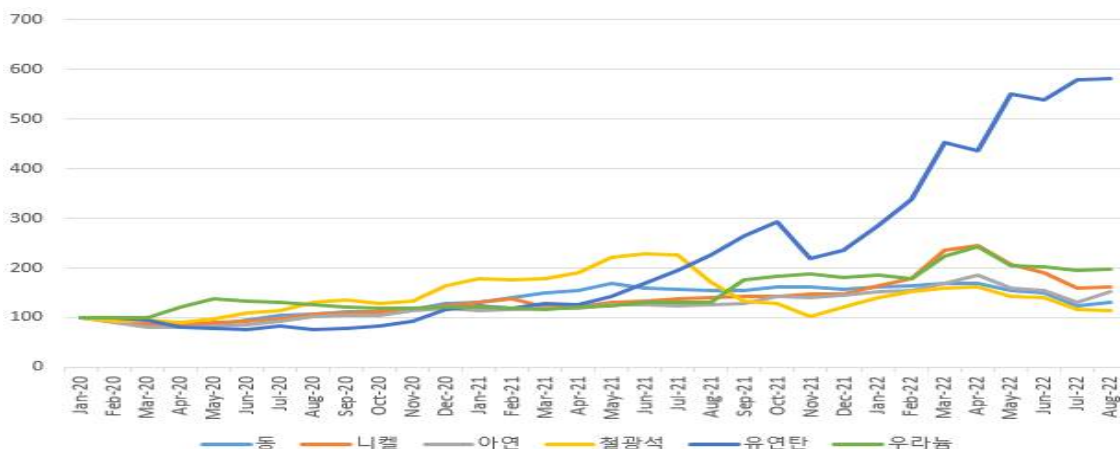
<최근 6대 전략광물 가격추이 (단위:달러/톤, 우라늄은 달러/파운드)>

구 분	'21.Q2	'21.Q3	'21.Q4	'22.Q1	'22.Q2	'22.Q3 (추정)	전기대비 (%)
동	9,700	9,372	9,699	9,997	9,513	7,769	△18.3%
니켈	17,359	19,125	19,821	26,395	28,940	22,043	△23.8%
아연	2,916	2,991	3,364	3,754	3,915	3,303	△15.6%
철광석	197.97	169.39	110.74	140.78	139.68	106.01	△24.1%
유연탄	102.47	159.44	173.23	251.45	356.34	413.84	16.1%
우라늄	30.94	35.86	45.46	48.43	54.14	49.43	△8.7%

금년 3분기 6대 전략광물의 가격추이를 살펴보면, 금속광물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 여파로 가격 조정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철광석 시장은 작년 2분기 미·중 인프라 확대정책 등 경기부양책과 중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사상최고가를 경신하였으나, 이후 중국의 조강생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충격으로 하방모멘텀이 발생하였으며, 3분기 평균가격은 전기대비 24.1% 하락하면서 톤당 100달러선에 근접할 만큼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선행지표(LEI)로서 “닥터코퍼”라 불리는 동은 금년 상반기까지 칠레의 대형 노후광산들의 품위저하 및 가뭄에 따른 용수부족 문제로 광산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인프라 확대 등 경기부양책으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되면서 톤당 9천달러 후반선에 강세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금년 3분기들어 달러강세화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 지속에 따라 투자적 수요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기동 가격은 전기대비 18.3% 하락으로 톤당 7천달러선을 형성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니켈은 러시아발 공급망 충격으로 니켈생산 세계 1위 기업인 Norilsk사의 공급차질 이슈가 부각되었으며, 중국의 전기차 시장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증가로 상반기까지 톤당 2만달러 후반선으로 시장강세가 지속되었다. 이후 달러강세화 및 인도네시아의 니켈 정제련 사업확대로 하방압력이 발생하면서 3분기 니켈가격은 전기대비 23.8%의 조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연도 동, 니켈과 유사한 가격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전력난여파로 유럽지역의 제련소 가동차질에 따라 상반기까지 톤당 3천달러 후반선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3분기 아연가격은 전기대비 15.6%의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전략광물의 가격지수('20년1월 = 100인지수) 추이>



한편, 러시아발 에너지원 공급망 차질로 공급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유연탄은 금년 3분기 사상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전기대비 16.1%의 상승세로 타광종과는 차별화된 가격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금년 1월 인도네시아의 석탄 금수조치(1개월), 2월말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이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시장을 강타하였고, 중국은 60년내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으로 전력난까지 심화되면서 유연탄 수입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원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유연탄의 중장기 수요전망은 악화될 전망이며, 최근의 공급망 충격이 완화될 경우 하방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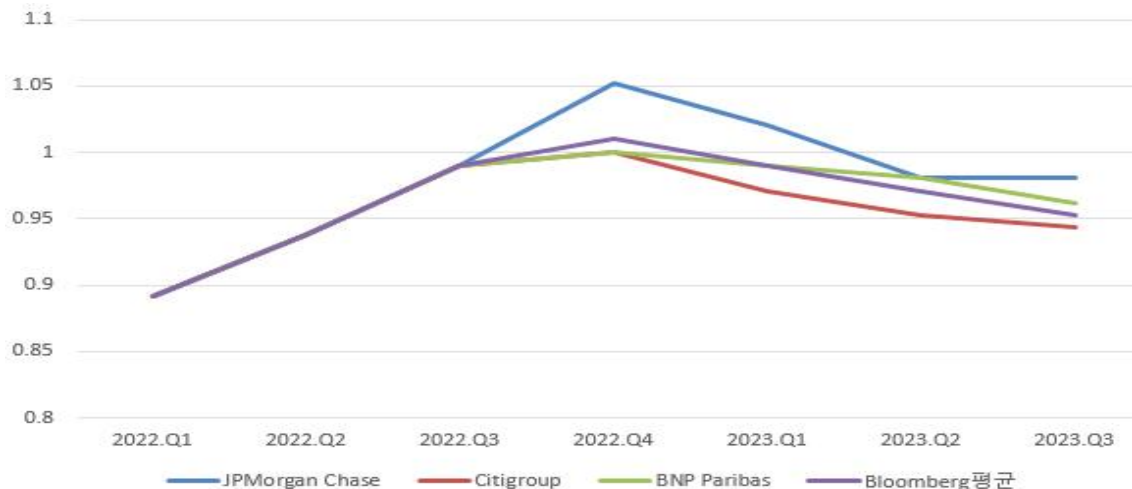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원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미달러가치는 금년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으로 달러강세화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심리가 확산되면서 자원시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8%대를 유지하면서 미연준은 6월, 7월에 이어 9월 FOMC회의에서 0.75%p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3~3.25%로 2008년1월이후 최고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간 지속된 제로금리의 완화기조가 종료되고 긴축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달러인덱스는 9월 현재 110선을 상회하면서 2002년이후 20년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위험자산의 기피심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의 거둬들인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금리인상을 강행하고 있으며,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미달러인덱스 및 전기동 가격추이〉

Bloomberg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작년 0.25%에서 올해 4.0%까지 인상¹⁾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까지 미연준의 금리인상 규모는 시장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긴축정책이 완화될 경우 상기 달러리스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JPMorgan Chase, Citigroup, BNP Paribas 등 글로벌 투자기관은 금년말 까지 미달러가치의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완만한 하락세로 달러리스크가 점차 상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심리 부진은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물자원 시장에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들의 미달러가치(유로화/달러화) 전망추이²⁾>



두 번째로 자원 최대소비국인 중국의 경기변동 측면을 살펴보면, 금년들어 전력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및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주요도시 봉쇄조치 여파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4.8%, 2분기 0.4%, 3분기 3.5%(Bloomberg 전망치(9/26일))까지 전망치가 낮게 추정되는 등 산업경기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8월 Caixin 제조업 PMI는 49.5으로 경기둔화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코로나 봉쇄조치 지속 및 러시아발 에너지원 공급망 차질에 따른 전력난 여파로 전월대비 0.9p 하락, 시장전망치를 0.7p 하회하면서 산업경기가 위축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1) 자료원 : Bloomberg통신('22.9.26일기준, ECFC 미국 경제전망)

2) 자료원 : Bloomberg통신 2022년 9월26일기준

<주요 기관들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³⁾>

구 분	'22년	'23년	'24년
Bloomberg 평균	3.3	5.0	4.8
Standard Chartered	3.3	5.8	5.4
Morgan Stanley	2.8	5.2	-
Moody's	3.1	5.5	5.1
Goldman Sachs Group	3.0	4.5	4.6

최근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과 전력난에 따른 경제활동 차질로 주요 기관들은 '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대비 크게 하향시키고 있다. 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3% 대를 예측했으며,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22년 GDP 성장률은 2%후반 ~ 3%초반대로 종전대비 1.0%p 하향 조정할 것을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성장 구조가 과거 제조업/수출중심 에서 서비스/내수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과 자원소비 유발효과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원시장은 금년 하반기들어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달러강세화 및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며, 핵심변수인 미달러가치와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은 올해 자원시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서 시작된 공급망 위기가 완화될 경우 세계 인플레이션도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금리인상에 따른 하방압력이 내년이후 점차 상쇄될 가능성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달러가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이와 그에따른 미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코로나 재확산 및 전력난 등으로 산업경기가 둔화될 수 있어 자원시장에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자료원 : Bloomberg통신 2022년 9월22일기준

I 광종별 시장전망

(1) 동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미연준의 금리인상 단행⁴⁾으로 달러가치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기피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러시아발 에너지원 공급망 차질로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전력난 여파로 산업활동이 둔화되면서 수요둔화 우려에 따른 전기동 시장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신규/확장 프로젝트의 정상생산 진입효과로 정련동 수급편더멘탈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점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3분기 전기동 추정가격은 톤당 7,769달러로 전기대비 18.3%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세계 1위 동 생산국가인 칠레의 금년 상반기 동 광산생산량이 코로나 재확산, 노후 대형광산들의 품위저하, 가뭄에 따른 용수부족 문제로 전년동기대비 6% 감소하였으며, 페루도 Cuajone, Las Bambas 등 대형광산 인근 지역주민들의 시위여파로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차질이 유발되면서 공급차질로 인해 상기 하방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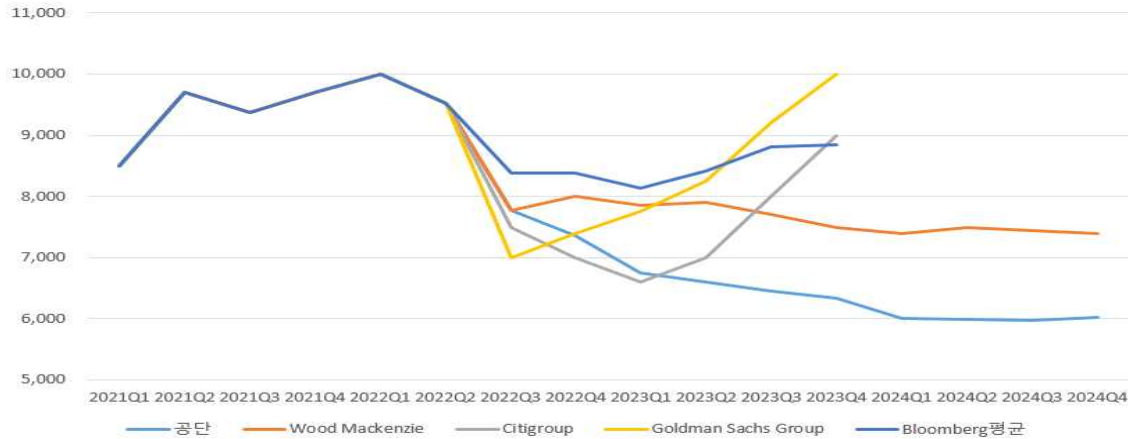
<정련동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2년9월)>

구분	'21년	'22년	'23년
정련동 공급	24,852천톤	24,897천톤	25,852천톤
정련동 소비	24,430천톤	24,817천톤	25,604천톤
편더멘탈	공급과잉 (+423천톤)	공급과잉 (+80천톤)	공급과잉 (+248천톤)

Wood Mackenzie사는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달러강세화 및 중국,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에 따른 전력난으로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수요측면의 하방리스크를 내다보고 있으며, 공급측면에서는 칠레, 페루의 광산생산 부진으로 '22년 동 수급 편더멘탈이 공급과잉에서 수급균형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3년이후 콩고민주공화국(DRC)의 Kamao-Kakula 확장사업, 칠레 El Teniente 등 노후광산들의 생산개과 확대, 인도네시아 Grasberg 광산의 갱내채굴 전환, First Quantum사의 주력광산인 파나마 Cobre Panama, 잠비아 Sentinel의 증산전망 등 대형 신규/확장 프로젝트의 진입효과로 공급량 증가율이 소비량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공급과잉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4) 미연준은 6월, 7월에 이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여 2008년1월이후 최고치인 3.0~3.25%의 금리수준을 형성함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주요 기관별 전기동 가격전망 추이>



공단의 전기동 가격예측 모델은 미달러화 가치인 유로/달러 환율, 전기동 소비량 및 공급량 등이 포함되어 운용되고 있다. 주요 전망기관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달러강세 및 중국, 러시아발 공급망 위기 지속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요측면의 하방리스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긴축정책 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제회복 전망에 따라 전기동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기동 가격은 내년 이후 톤당 8천달러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23년이후에도 신규/확장 프로젝트 진입확대로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공단 ('22.09.23)	Wood Mackenzie ('22. 9월)	Citi Group ('22.09.22)	Goldman Sachs Group ('22.09.01)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2.09.23)
2022Q1	9,997				
2022Q2	9,513				
2022Q3	7,769	7,780	7,500	7,000	8,384
2022Q4	7,362	8,000	7,000	7,400	8,375
2023Q1	6,749	7,850	6,600	7,750	8,135
2023Q2	6,595	7,900	7,000	8,250	8,410
2023Q3	6,450	7,700	8,000	9,200	8,819
2023Q4	6,330	7,500	9,000	10,000	8,839
2024Q1	6,005	7,400			
2024Q2	5,996	7,500			
2024Q3	5,981	7,450			
2024Q4	6,024	7,400			

(2) 니켈의 경우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로 매과적 긴축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의 공급망 위기 지속으로 전력난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하방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배터리 핵심원료의 수요 확대전망 및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되면서 상기 하방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고 있다. 이에따라 3분기 니켈 추정 가격은 톤당 22,043달러로 전기대비 23.8%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8월 신에너지 자동차(NEV) 생산량은 71만4천대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 경신하였으며, 금년 2월말 러시아발 니켈 공급망 충격 및 인도네시아의 저품위 니켈제품(페로니켈, 니켈선철 등) 수출관세 부과계획 등으로 공급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점도 상쇄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수급측면에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니켈재고량이 9월3주차 기준 52,072톤으로 전주대비 1% 감소, 20주연속 감소세로 타이트한 수급상황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Wood Mackenzie사에 따르면 금년 니켈시장은 글로벌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 지속, 인도네시아의 니켈 정제련소 생산개과 확대정책으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 및 전기차 배터리 수요확대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되면서 상기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전망이다. '22년 니켈소비는 2,960천톤으로 전년대비 6.1%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스테인리스용 소비가 1,941천톤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배터리 전구체용 소비가 416천톤으로 전년대비 30.4% 급증하면서 소비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 같은기간 니켈공급은 3,142천톤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세로 소비보다 빠른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정제련 생산개과 확대로 '22년 인니의 광산생산이 1,726천톤으로 전년대비 54.7%의 급증세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니켈의 수급 편더멘털은 '21년 공급부족(78천톤)에서 '22년 공급과잉(182천톤)으로 전환되면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련니켈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2년9월)>

구분	'21년	'22년	'23년
정련니켈 공급	2,714천톤	3,142천톤	3,409천톤
정련니켈 소비	2,791천톤	2,960천톤	3,401천톤
편더멘털	공급부족 (-78천톤)	공급과잉 (+182천톤)	공급과잉 (+9천톤)

<주요 기관별 니켈 가격전망 추이>



따라서 니켈시장은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달러강세화 지속으로 위험자산 기피 및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전망으로 수요측면이 제약받는 동시에 공급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정제련 생산캐파 확대에 의해 수급편더멘털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되면서 하방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니켈가격은 금년까지 하락추세를 나타내면서 내년부터 톤당 2만달러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공단 ('22.09.23)	Wood Mackenzie ('22. 9월)	Citi Group ('22.09.22)	Goldman Sachs Group ('22.09.01)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2.09.23)
2022Q1	26,395				
2022Q2	28,940				
2022Q3	22,043	21,490	22,698	25,000	23,460
2022Q4	20,867	22,009	22,000	27,500	23,407
2023Q1	19,189	21,679	20,000	29,500	23,414
2023Q2	18,718	22,046	20,000	31,000	23,493
2023Q3	18,731	22,561	22,000	28,000	23,767
2023Q4	19,075	21,495	19,000	26,000	22,411
2024Q1	18,495	20,944			
2024Q2	18,722	21,458			
2024Q3	19,066	19,621			
2024Q4	19,433	18,298			

(3) 아연의 경우 러시아발 에너지원 공급망 차질에 따라 유럽지역의 전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연 메이저 세계 2위 Nyrstar사가 유럽내 아연 제련소인 Budel 제련소 등 3곳의 감산을 추진중이며, 메이저 Trafigura Group, Glencore 등도 감산을 단행하면서 정련아연의 수급편더멘털은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수급부족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 지속에 따른 산업경기 부진에 따라 하방리스크가 아연시장을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금년 3분기 정련아연 추정가격은 톤당 3,303달러로 전기대비 15.6%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련아연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2년9월)>

구분	'21년	'22년	'23년
정련아연 공급	13,808천톤	13,569천톤	14,313천톤
정련아연 소비	14,034천톤	14,211천톤	14,460천톤
편더멘털	공급부족 (-226천톤)	공급부족 (-642천톤)	공급부족 (-147천톤)

Wood Mackenzie사에 따르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신규/확장 프로젝트의 부족 및 Nyrstar, Glencore등의 전력비용 급등에 따른 정제련소 감산결정으로 인해 '22년 공급증가율은 전년대비 -1.7%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련아연 소비량은 글로벌 경기부진 여파로 전년대비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부족분이 전년대비 42만톤 가량 증가하면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정련아연 가격은 편더멘털과는 다소 괴리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 차질로 불거진 세계 스테그플레이션 하에서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불안 우려 및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전망 등으로 하방압력이 심화하면서 완만한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별 아연 가격전망 추이>



구분	공단 (‘22.09.23)	Wood Mackenzie (‘22.9월)	Citi Group (‘22.09.22)	Goldman Sachs Group (‘22.09.01)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2.09.23)
2022Q1	3,754				
2022Q2	3,915				
2022Q3	3,303	3,257	3,500	3,150	3,427
2022Q4	3,067	3,333	3,600	3,400	3,440
2023Q1	3,002	3,400	3,400	3,550	3,349
2023Q2	2,944	3,400	3,200	3,650	3,355
2023Q3	2,879	3,600	3,500	3,750	3,442
2023Q4	2,801	3,850	4,000	4,000	3,576
2024Q1	2,766				
2024Q2	2,734				
2024Q3	2,705				
2024Q4	2,680				

(4) 철광석⁵⁾은 ‘21년2분기 톤당 198달러로 사상최고가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조강생산이 둔화되면서 수요충격에 따라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강달러 현상으로 위험자산 전반에 하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은 공급망 차질로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철강산업의 경기침체 우려로 하방압력이 심화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메이저 헝다그룹의 구조조정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⁶⁾되고 있는 점이 수요측면에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년 3분기 철광석의 추정가격은 톤당 106달러로 전기대비 24.1%의 하락세 전망으로 6대 전략광물 중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철광석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2년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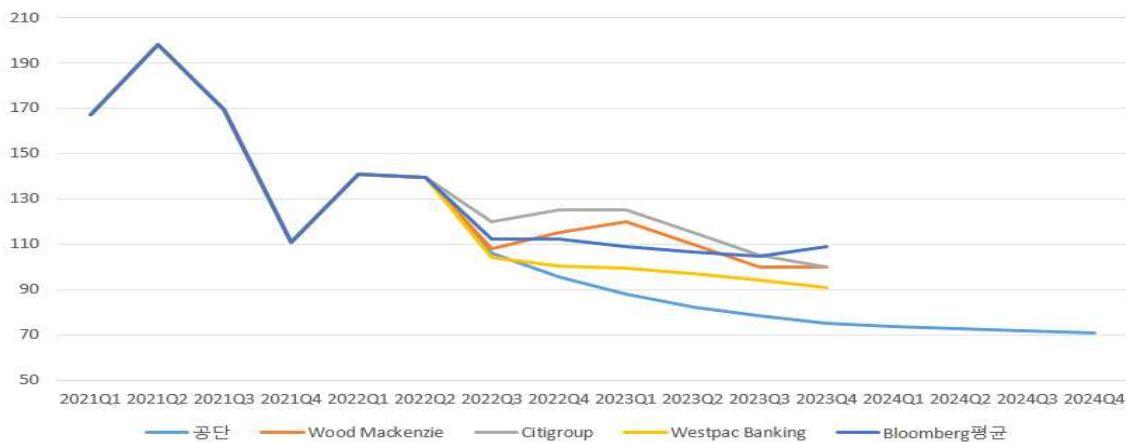
구분	‘21년	‘22년	‘23년
철광석 공급	2,469백만톤	2,408백만톤	2,451백만톤
철광석 소비	2,553백만톤	2,542백만톤	2,569백만톤
편더멘탈	공급부족 (84백만톤)	공급부족 (134백만톤)	공급부족 (118백만톤)

5) 철광석 가격기준 : 62% 분광 중국 수입가(CFR) 기준

6) 중국의 8월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평균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여파로 4개월연속 마이너스로 전년동월대비 1.3% 하락세로 `15년8월이후 최대 감소률을 경신함

Wood Mackenzie에 따르면 '22년 철광석 수급편더멘털은 소비가 25.4억톤으로 글로벌 긴축정책 가속화 및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 지속으로 철강산업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전년대비 0.4% 감소할 전망이며, 공급은 24.1억톤으로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차질로 전년대비 2.5% 감소하면서 공급부족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대비 공급감소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방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철광석 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확대 및 중국의 성장동력 전환에 따른 철강산업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공급적인 측면에서 대형 메이저사들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저원가 증산전략으로 인해 하방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철광석 가격은 하향추세를 나타내면서 '23년 톤당 90달러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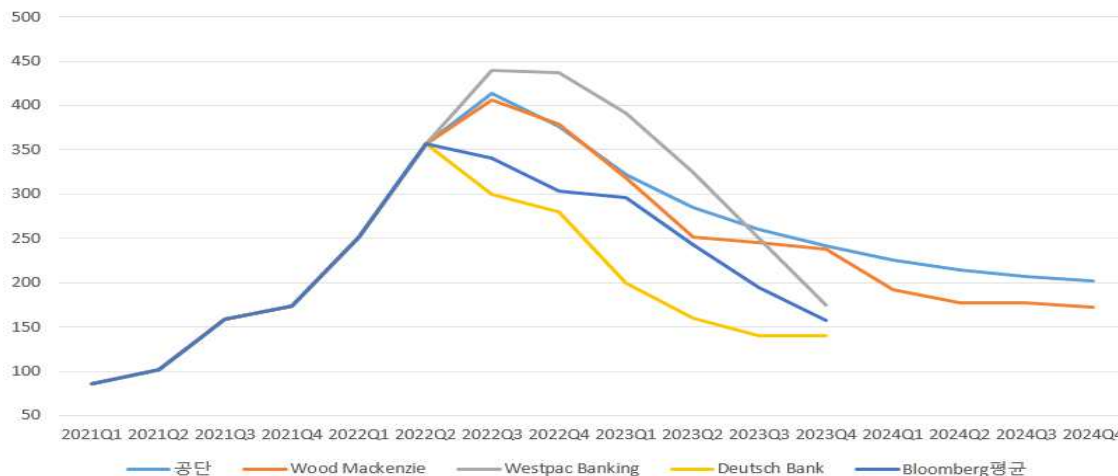
<주요 기관별 철광석 가격전망 추이>



구분	공단 ('22.09.23)	Wood Mackenzie ('22. 9월)	Citi Group ('22.09.22)	Westpac Banking ('22.09.20)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2.09.23)
2022Q1	140.78				
2022Q2	139.68				
2022Q3	106.01	108	120	104.29	112.43
2022Q4	95.46	115	125	100.36	112.34
2023Q1	87.90	120	125	99.67	108.81
2023Q2	82.35	110	115	97.00	106.83
2023Q3	78.35	100	105	94.00	104.83
2023Q4	75.24	100	100	91.00	109.20
2024Q1	73.89				
2024Q2	72.71				
2024Q3	71.66				
2024Q4	70.74				

(5) 에너지원 중 하나인 유연탄⁷⁾은 글로벌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도 60년내 최악의 가뭄으로 수력발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난 심화로 발전용 연료탄 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22년3분기 연료탄의 추정가격은 톤당 414달러로 전기대비 16.1%, 전년동기대비 159.6%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금년부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에너지 안보 목적으로 자국의 석탄 증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유가가 OPEC+의 증산결정에 따라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에너지원 하방압력이 발생한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 지속에 따른 산업활동 둔화로 상기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기관별 유연탄 가격전망 추이>



Wood Mackenzie에 따르면 '22년 유연탄의 해상교역 수입량 전망치는 9.27억톤으로 글로벌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둔화 전망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할 전망이며, 수출량 전망치는 9.45억톤으로 전년대비 1.2% 감소로 수급상황이 '21년 공급부족에서 '22년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로 수요가 제약받을 전망이며, 중장기적 측면에서 탄소중립 경제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에너지원 선호추세 등을 고려할 경우 연료탄 가격은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하향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료탄 가격은 하락추세를 형성하면서 '23년경 톤당 200달러 중후반선에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7) 가격기준 : Intercontinental Exchange(ICE) 호주 뉴캐슬산 기준(globalCOAL NEWC Index) 6,000kcal/kg NAR

구분	공단 ('22.09.23)	Wood Mackenzie ('22. 9월)	Westpac Bank ('22.09.20)	Deutsch Bank ('22.07.05)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2.09.20)
2022Q1	251.45				
2022Q2	356.34				
2022Q3	414.00	406	439.59	300	340.32
2022Q4	376.50	379	437.71	280	303.51
2023Q1	322.10	318	391.67	200	295.83
2023Q2	284.91	251	325	160	242.50
2023Q3	260.20	246	250	140	195.00
2023Q4	241.73	238	175	140	157.50
2024Q1	225.33	192			
2024Q2	214.39	177			
2024Q3	207.22	177			
2024Q4	202.75	172			

(6) **우라늄⁸⁾**의 경우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메이저 Cameco사와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Kazatomprom사의 감산결정이 가격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전 세계적 전력난 심화 및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로 '22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공급과잉 및 과다재고의 펀더멘털적 수급제약으로 우라늄 시장은 조정압력을 받으면서 3분기 가격은 파운드당 49.43 달러로 전기대비 8.7% 하락세로 추정된다. 한편, 8월말 일본의 원전 재가동 및 신규 원전 발표 계획 발표, 한국의 원전 에너지비중 확대 정책 추진, 미국의 3,700억 달러 규모 에너지지원을 포함한 IRA 서명 등 향후 우라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발전소들이 러시아산 변환 우라늄의 대체 공급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원전 비중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변환 우라늄의 미래 수요는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⁹⁾.

향후 우라늄 가격은 러시아발 에너지원 공급망 충격의 완화 정도에 따라 부침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과 전력난에 따른 전세계적 경제둔화 전망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전망에 따라 수요측면의

8) 가격기준 : Nuexco 현물가격지수 기준

9) 자료원 :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월간자원인사이트 9월호 "우라늄"

하방리스크가 우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라늄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파운드당 40달러 중후반대에서 박스권 횡보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 가격전망(달러/파운드) 추이>



※ 참고자료 : 연도별 해외기관 가격전망 (자료원 : Bloomberg 9월23일)

동

구 분	'22	'23	'24
Bloomberg평균	9,055	8,641	9,789
Citi Group	8,505	7,650	9,500
Westpac Banking	8,790	7,942	8,937

니켈

구 분	'22	'23	'24
Bloomberg평균	25,631	23,420	23,187
Citi Group	25,530	20,250	19,000
Westpac Banking	25,432	21,546	23,076

아연

구 분	'22	'23	'24
Bloomberg평균	3,618	3,354	3,293
Citi Group	3,680	3,525	3,500
Westpac Banking	3,531	3,173	3,139

철광석

구 분	'22	'23	'24
Bloomberg평균	125.84	105.55	96.63
Citi Group	130	110	-
Westpac Banking	120.88	95.42	83.75

유연탄

구 분	'22	'23	'24
Bloomberg평균	328.90	224.85	163.56
Fitch Solutions	320	280	250
Westpac Banking	384.78	285.42	126.25